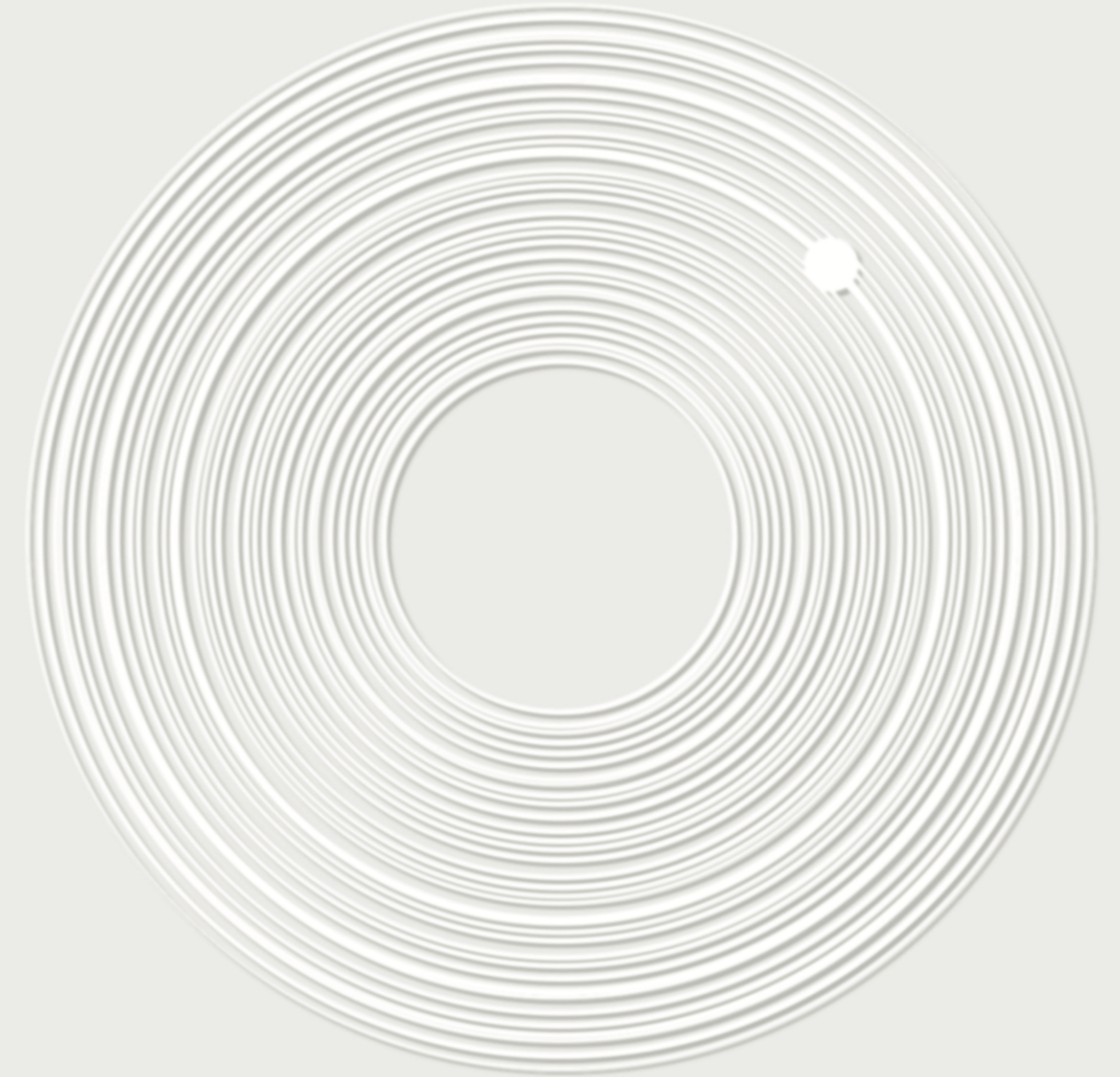


SUPERCOMPENSATION : RESTORING GLOBAL PROSPERITY & FREEDOM



세계지식포럼 사무국

(우)0462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
(필동1가, 매경미디어센터) 4층
전화 : 02-2000-2411~5
일반문의 : knowledge@mk.co.kr
등록문의 : wkf_reg@mk.co.kr

The World Knowledge Forum Secretariat

4FL. Maekyung Media Center Bldg.
190, Toegye-ro,
Jung-gu, Seoul, Korea 04627
Tel : +82-2-2000-2411~5
Fax : +82-2-2000-2419
E-mail : knowledge@mk.co.kr

매일경제 **MBN**



2022. 9. 20~22
Seoul, Korea

SUPERCOMPENSATION :

RESTORING GLOBAL PROSPERITY & FREEDOM

2022. 9. 20~22
Seoul, Korea

WORLD
KNOWLEDGE
FORUM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세계지식포럼 집행위원장

장 대 환

Jae-wan Chang

MESSAGE FROM THE CHAIRMAN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세계지식포럼이 올해로 제23회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대 포럼으로 자리를 잡은 세계지식포럼은 이제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최고의 글로벌 포럼을 목표로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지식포럼은 매년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매년 중요한 글로벌 현안을 짚어내 국내외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시의적절한 화두를 던지고, 세계가 변화하는 가장 최신 트렌드를 소개해왔습니다. 덕분에 세계지식포럼은 매해 포럼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지식포럼은 세계 석학들의 지식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지식의 신세계이자 지식의 향연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각종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시민들에게 지식을 전파하는 첨병 역할도 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익숙해진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세계지식포럼의 진정한 글로벌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23회 세계지식포럼은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의 변화가 극심하게 이어지고, 경제를 중심으로 미중유의 위기가 불어닥친 시기에 개최됩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인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고 있지만, 팬데믹 이후 이어진 잇따른 악재 탓에 미래에 대한 전망은 오히려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냉전 시대, 코로나 극복을 위해 각국 정부가 쏟아냈던 막대한 유동성이 불러온 초인플레이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필두로 이어지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정책과 그에 따른 실물경제 위기까지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세계를 바꿀 거대한 기회는 항상 이런 위기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된 한국 또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만한 호기를 잡은 셈입니다. 이에 올해 세계지식포럼의 주제는 ‘초과회복: 글로벌 번영과 자유의 재건 (Supercompensation: Restoring Global Prosperity & Freedom)’으로 정했습니다.

초과회복은 스포츠과학 이론의 용어로 훈련 또는 강도 높은 운동 후의 회복 과정에서 기존의 신체 수준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는 단계를 뜻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위기를 향후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는 ‘성장통’으로 탈바꿈시키려면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올해도 세계지식포럼에서 세계 최고의 석학들, 글로벌 전문가들과 만나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세계지식포럼이 열리는 사흘간 참가자들은 조화로운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최고의 지식으로 보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TERRA INCOGNITA:

REDESIGNING THE GLOBAL ARCHITECTURE

테라 인코그니타: 공존을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

매일경제 MBN

매일경제 MBN

TERRA INCOGNITA

REDESIGNING THE GLOBAL ARCHITECTURE



WORLD KNOWLEDGE FORUM 2022

세계지식포럼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뒤 창조적 지식국가 대전환을 목표로 2년여간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출범했다. 그동안 세계지식포럼은 지식 공유를 통한 지식격차 해소, 균형 잡힌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자리를 제공해왔다.

‘지식으로 새 천년 새 틀을 짜다’라는 주제로 첫 포럼이 열린 후 지금까지 총 5,188명의 글로벌 연사와 5만 5,860여 명의 청중이 참여해 세계지식포럼을 명실상부한 지구촌 최대 지식축제로 만들었다.

조지 W 부시 제43대 미국 대통령, 테리사 메이 제76대 영국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제23대 프랑스 대통령, 게르하르트 슈뢰더 제7대 독일 총리 등 국가 정상들,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 국제기구 대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 존 헤네시 알파벳 회장,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 회장 등 기업인, 래리 서머스, 폴 크루그먼, 마이클 포터, 그레고리 맨규 등 석학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계의 미래를 고민했다.


올해 23회를 맞는 세계지식포럼에서는 ‘초과회복: 글로벌 번영과 자유의 재건(Supercompensation: Restoring Global Prosperity & Freedom)’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올해 세계지식포럼에는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제24대 프랑스 대통령,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창업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 마리아 레사 래플러 CEO(202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 밥 스탠펠스 맥킨지앤드 컴퍼니 글로벌 회장, 마크 리드 WPP 최고경영자(CEO), 벤 넬슨 미네르바스쿨 설립자 겸 CEO, 이민진 소설 파친코 작가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숫자로 보는 세계지식포럼

WORLD KNOWLEDGE FORUM IN NUMBERS 2000~2021

55,860

 포럼 참가자

22년의 세계지식포럼 기간 중 국내외 정계, 학계, 기업 등 각계각층의 참가자들이 '지식의 향연'을 즐겨 왔습니다.

82

 국가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등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서 세계지식포럼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5,188

 연사

조시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 등 정치, 경제, 산업계의 글로벌 연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1,544

 세션

세계지식포럼에서는 해마다 경제, 산업, 정치, 문화, 예술, 미래, 기후변화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집니다.

역대 세계지식포럼 주제

WORLD KNOWLEDGE FORUM TOPICS 2000~2021

2000
지식으로 새 천년 새 틀을 짠다
Shaping the New Millennium with Knowledge

2001
지식기반 경제시대 인류공영을 위한 비전의 모색
Drawing the Roadmap for Knowledge Economy and Global Prosperity

2002
위기를 넘어, 새로운 번영을 향해
Knowledge in a World of Risk: A Compass towards New Prosperity

2003
인류번영을 위한 새로운 세계질서와 경제의 창조
Creating a New World Order and Economy

2004
파트너십을 통한 세계경제의 재도약
Partnership for Renewed Growth

2005
창조와 협력: 새로운 시대를 위한 토대
Creativity and Collaboration: Foundation for the New Era

2006
창조경제
Creative Economy

2007
부의 창조와 아시아 시대
Wealth Creation & Asia

2008
협력의 마법 & 아시아 시대
Collabonomics & Greater Asia

2009
하나의 아시아, 신 경제질서 그리고 경기회복
One Asia: New Economic Order & Recovery

2010
원 아시아 모멘텀, G20리더십 & 창조적혁신
One Asia momentum, G20 Leadership & Creatinnovation

2011
신 경제 위기: 글로벌 리더십의 변혁과 아시아의 도전
The New Economic Crisis: Reforming Global Leadership & Asia's Challenge

2012
위대한도약
글로벌 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법:
The Great Breakthrough: New Solutions for Global Crisis

2013
원아시아 대변혁
The One Asia Metamorphosis

2014
세계 경제 새로운 태동
Invigorating the Global Economy

2015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서
Mapping the Zeitgeist

2016
대혁신의 길
Aiming for Great Instauration

2017
변곡점을 넘어, 새로운 번영을 향해
Inflection Point: Towards New Prosperity

2018
집단지성: 글로벌 대혼란 극복의 열쇠
Collective Intelligence: Overcoming Global Pandemonium

2019
지식혁명 5.0: 인류 번영을 위한 통찰력
Knowledge Revolution 5.0: Pespircacity Towards Prosperity for All

2020
팬데믹스: 세계 공존의 새 패러다임
Pandemonics Perspective: Shaping New Global Symbiosis

2021
테라 인코그니타: 공존을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
Terra Incognita: Redesigning the Global Architecture

제23회 세계지식포럼 주제 소개

SUPERCOMPENSATION : RESTORING GLOBAL PROSPERITY & FREEDOM

초과회복: 글로벌 번영과 자유의 재건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질서의 재편을 촉진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라는 양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과거 수십 년간 국제질서는 경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하나의 가치사슬로 연결돼왔지만, 이제 분열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신(新)냉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도 전환의 '트리거(trigger)'가 됐다. 전쟁으로 촉발된 식량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세계 경제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균형점을 무너뜨렸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재정·통화정책으로 막대한 유동성을 투입한 가운데 더해진 이 같은 충격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팬데믹 이후 상품 공급망 재편에 나선 세계 각국은 경제성이 아닌, 지정학과 안보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정치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블록화되는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또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 이는 분열된 세계 속에서 '동맹의 요건'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세계는 '반(反)세계화'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팬데믹 이후 눈부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세계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로 연결된 상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온라인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운동에 참여한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어느 때보다 가깝게 연결된 세계인들은 같은 콘텐츠를 보고 즐기며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제23회 세계지식포럼은 세계가 직면한 정치·경제·사회적 도전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초과회복: 글로벌 번영과 자유의 재건(Supercompensation: Restoring Global Prosperity & Freedom)'을 주제로 제시한다. '초과회복'은 회복을 넘어 더 나은 상태가 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그 지향점은 자유와 번영이다. 팬데믹,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자유의 가치는 훼손되고 있고, 인류의 지속적인 번영도 도전을 받고 있다. 제23회 세계지식포럼은 단순히 과거 상태로의 복원이 아닌, 그 이상의 도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Supercompensation은 회복을 넘어 더 나은 상태가 되는 단계를 의미



트랙 소개
**TRACK
INTRODUCTION**

**01. COLD WAR
REDUX**
新냉전시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점으로 국제질서의 재편 속도는 더 빨라졌다.

전쟁 이전까지 국제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재편이 진행돼왔다. 팬데믹은 미·중 간 갈등 구도를 진영 간 구도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같은 진영 간 대결 구도를 더 명확하게 진전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제 세계는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간의 대립이라는 '신(新)냉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가고 있다. 세계 경제의 기본 축인 국제무역 또한 안보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질서의 재편은 빠른 속도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본 트랙은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미래 번영을 위한 최적의 선택지를 모색한다.

**02. NEW WEALTH
EQUATION**
새로운 富의 균형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공급망 재편 등의 요인으로 세계 경제는 예측 불허의 상황을 맞이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유례없는 유동성 공급에 나섰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은 현실로 다가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와 식량 가격의 상승을 이끌며 인플레이션에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으며 그 반작용으로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금리 인상의 과정에서 또 다른 경제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 또한 나온다.

전쟁으로 인해 경제성보다는 안보의 가치를 우선하는 '경제블록'이 형성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향해 이동하는 지금, 본 트랙은 미래 부(富)를 향한 경로를 찾아 나선다.

**03. DYNAMICS OF
TRANSFORMATION**
산업전환의 역학

팬데믹 이후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비즈니스와 산업은 전면적인 전환기를 맞게 됐다.

기술의 발전은 산업과 산업 간의 융합을 이끌고 있으며 팬데믹은 이 같은 전환에 가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됐다. 기업 경영 전반에서도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급격한 디지털화는 소비자들의 소비방식을 바꿨으며, 상품 판매 채널과 마케팅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팬데믹 이후의 재택근무는 '일의 미래(Future of Work)'를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근무방식과 고용 형태, 조직의 관리 측면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본 트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은 비즈니스와 산업을 조망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살펴본다.



04. FUTURE LAUNCHPAD

미래형 런치패드

눈부신 기술의 진보 속에서 새로운 혁신 기업들의 등장이 줄을 잇고 있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선 혁신가들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할 것이다.

디지털 경제의 파급은 국가와 사회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5G 같은 첨단 기술은 이미 산업 전반에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바이오, 가상화폐, 6G 같은 새로운 기술도 미래를 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메타버스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결합되면서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민간 기술기업들이 뛰어난 우주탐사에서 개척자들은 '무한한 기회'를 찾아 나섰다. 본 트랙에서는 새로운 미래 기업들의 움직임과 그들의 가능성을 예측한다.

05. GREENSHIFT & C-TECH RACE

녹색전환 & C-테크 레이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에 있어 기술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기술뿐 아니라 공기 중의 탄소를 포집해 처리하는 기술, 수소에너지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기술,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재활용하는 기술들이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로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기후기술(C-tech)에는 앞으로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다. 본 트랙은 넷제로를 향한 지속가능한 정책, 탄소시장의 미래와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해 논의한다.

06. ALGEBRA OF FREEDOM

자유를 위한 함수

지난 100여 년간 지속된 인류의 번영에는 '자유'라는 원동력이 자리하고 있었다.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로서 인류의 지향점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권위주의 국가들이 군사적·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부상했으며 자유의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 정부가 경제에 깊이 개입하며 경제를 주도해왔고 그 결과 경제의 자유, 기업의 자유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작동해온 경제체제가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본 트랙에서는 자유의 가치를 조명하고 정치적·경제적 자유의 발전적 미래에 대해 탐색한다.

07. REBUILDING TRUST & LIVING INSPIRED

신뢰의 구축과 가치 있는 삶

사회와 문화, 인간의 삶은 팬데믹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팬데믹을 향한 과학과 기술, 정부, 민간의 공동 대응은 인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팬데믹이 불평등과 사회 갈등을 키운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인플레이션의 심화로 이 같은 불평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나 새로운 전염병이 등장할 수 있다는 위험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비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팬데믹 이후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과 소비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국 문화는 글로벌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기술적 연결은 이 같은 변화를 지속적으로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팬데믹 이후 사회와 문화, 개인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 트랙에서 진행된다.

연사 소개 SPEAKER INTRODUCTION

지정학 · 시대정신



데이비드 캐머런
David Cameron
전 영국 총리(2006~2010)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최근 2세기 동안 영국에서 가장 젊은 총리로서 경제 위기 시점에 영국의 리더가 됐다.

그의 리더십 아래 영국의 경제는 탈바꿈했다. 무역적자는 3분의 2 이상 감소했고 100만개 이상의 기업이 새롭게 설립됐다. 기록적인 일자리도 새롭게 창출됐다.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선진 경제국으로 떠오른 것이다. 그는 감세를 단행하고 교육을 변화시켰으며 복지를 개혁했고, 대국민 보건서비스를 보호하고 연금을 확대했다. 국제적으로 그는 아랍의 봄과 대(對)러시아 외교정책을 고안했으며 영국이 '이슬람국가(ISIS)'와의 싸움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을 개최한 후 그는 2013년 영국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공정한 과세와 투명성 증대, 개방적 무역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005년 보수당의 대표로 선출돼 세 차례의 선거에서 연속 패배한 당을 개혁하고 현대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프랑수아 올랑드
François Hollande
제24대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는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프랑스 공화국의 대통령이였다.

임기 동안, 그는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과 성장동력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개혁 조치들을 단행했다. 2015년과 2016년에 프랑스를 괴롭혔던 테러 공격들에 당당하게 맞섰다. 그는 프랑스를 대표해 중요한 결정들을 했다. 특히 그는 사헬 지역의 테러 단체들과 싸우기 위해 말리에 군을 파견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의 재임 기간 중인 2015년 12월 파리에서는 세계 기후 협정인 파리협정이 채택됐다. 현재 올랑드 대통령은 'France is committed' 재단의 회장을 맡고 있다. 이 재단은 결속력을 강화하고 시민들 간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대통령직 수행 이후 그는 여러 권의 책을 썼다. 자서전 격인 '권력의 교훈'은 그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민주적 위기'는 제5공화국 헌법 조항들에 주요한 수정을 제안하는 책이다.



존 볼턴
John Bolton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2018~2019)

존 볼턴은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단호하고 강한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해왔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와 조지 HW 부시,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 안보에 영향력을 미치고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으며 인정받아왔다. 그는 2015년 체결된 이란과의 국제 핵 협상에서 미국의 탈퇴를 주도하는 등 백악관 재임 기간 주요 정책적 판단에 관여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와의 전략적 대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국·러시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주요 정책 수립에 참여했고, 미국의 경제·안보 이익을 강력하게 내세우기도 했다. 재임 기간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테러리즘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선도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Francis Fukuyama
스탠퍼드대 교수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미국 스탠퍼드대 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의 정치학 교수로 연구하고 있다.

그는 개발과 국제정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글을 썼다. 특히 1992년 펴낸 '역사의 종말'은 20여 개국 언어로 번역됐으며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은 2019년에 출간됐다. 그의 가장 최근 저서인 '자유주의와 그에 대한 불만'은 2022년 5월에 출판됐다. 그는 미 코넬대에서 고전학 학사 학위를, 하버드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지프 나이
Joseph Nye
하버드대 교수

조지프 나이는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의 전 학장으로 현재 하버드대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그는 프린스턴대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고, 옥스퍼드대에서 로즈 장학금을 받았으며 하버드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미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미 국가정보위원회 의장, 미 국무부 차관보를 역임했다. 그의 최근 저서로는 '리더십 에센셜' '권력의 미래' '미 대통령 리더십과 미국시대의 창조'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등이 있다. 국제관계 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그는 미국 외교 정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로 선정됐으며, 2011년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그를 글로벌 100대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반기문
Ban Ki-moon
제8대 유엔 사무총장(세계지식포럼 공동의장)

대한민국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외무부 미주국장, 대통령 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외교통상부 차관 등을 지낸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2004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노무현정부에서 제33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다. 2006년 10월 유엔 총회에서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됐으며, 한 차례 연임을 거쳐 2016년까지 유엔을 이끌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2018년 1월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반기문 세계시민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같은 해 4월에는 보아오포럼 이사장에 선임됐다. 2019년 4월부터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연사 소개
**SPEAKER
 INTRODUCTION**

경제 · 금융



폴 크루그먼
 Paul Krugman
 뉴욕시립대 교수

폴 크루그먼은 미국 뉴욕시립대(CUNY) 대학원에서 경제학 교수로 일하고 있다.

CUNY로 옮기기 전 그는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교수로 일했고, 국제무역과 경제지리학에 대한 획기적인 업적으로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국제무역과 금융에 대한 업적을 인정받아 전미경제학회로부터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상하는 등 언론과 기관으로부터 폭넓은 찬사를 받았다. 그는 경제지리학 분야의 선구자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1974년 예일대에서 학사 학위를, 1977년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예일대, MIT, 스탠퍼드대에서 교편을 잡았다.



레이 달리오
 Ray Dalio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창립자

50년 넘게 글로벌 투자자로 일해온 레이 달리오는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를 설립해 47년간 운영하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성공적인 헤지펀드로 키운 인물이다.

그는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의 투자자이자 멘토로 남아있으며 이사회에서도 활동 중이다. 그는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 '원칙' '변화하는 세계 질서' '레이 달리오의 금융위기 템플릿'의 저자이기도 하다. 1971년 롱아일랜드대 (CW포스트)에서 재무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1973년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존 테일러
 John Taylor
 스탠퍼드대 교수

존 테일러는 미국 스탠퍼드대의 경제학교수로 후버연구소의 경제학 부문 수석 펠로우로 일하고 있다.

그는 거시경제학, 통화경제학, 국제경제학 분야의 획기적인 연구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1976~1977년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의 수석 경제학자였으며 1989~1991년에는 경제자문위원으로 일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미 재무부의 국제관계담당 차관을 맡았다. 그는 몽펠랭 소사이어티(Mont Pelerin Society)의 전 회장이기도 하며, 최근 저서로는 '경제적 자유를 선택하라(Choose Economic Freedom)'가 있다.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적정 물가상승률과 잠재 경제성장률 하에서 균형금리가 유지되는 통화정책 운용 준칙인 '테일러 준칙'으로도 유명하다.



타일러 코웬
 Tyler Cowen
 조지메이슨대 교수

타일러 코웬은 조지메이슨대 경제학과 교수로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로부터 '미국의 가장 인기있는 경제학자'로 꼽힌 인물이다.

그는 '기업을 위한 변론' '거대한 침체'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는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글로벌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음 세대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할 경제적·금융적·인구통계적 요소를 분석하고 있다. 코웬 교수는 유로존과 의료제도, 미국 금융시스템 등 미래에 대한 설득력 있는 분석을 내놓는 교수로 알려져 있다. 지난 5월 '재능 있는 사람들'을 주제로 한 새 책을 출간했다.



스티븐 로치
 Stephen Roach
 예일대 교수

스티븐 로치는 2010년부터 예일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이곳에서 그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와 관련한 강좌를 개설했다.

그는 학계로 옮기기 전 모건스탠리에서 30년간 근무했으며 대부분의 경력을 모건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일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그는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최근 미·중 관계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해왔다. 2014년 저서 'G2 불균형(Unbalanced: The Codependency of America and China)'을 펴냈으며 2022년 11월에는 '우연한 충돌(Accidental Conflict: America, China, and the Clash of False Narratives)'을 출간한다. 미국 뉴욕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모건스탠리 합류 전에는 브루킹스연구소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근무했다.



모하메드 알리 알 쇼라파 알 하마디
 H.E. Mohamed Ali Al Shorafa Al Hammadi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의장

아부다비 집행위원회 위원이자 아부다비 경제개발부(ADDED)의 의장이다.

또한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산하기관인 아부다비투자진흥청(ADIO) 의장,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고 혁신 문화를 고취하기 위해 조성된 칼리파 펀드(KFED) 의장, 아부다비 정부 주도 인큐베이팅·엑셀러레이팅 기관인 Hub71 의장, UAE 증권상품국 이사회(SCA) 부의장, 아부다비자유무역지구 위원장, 에티하드 항공 그룹 회장, 그리고 아부다비의 금융산업 부문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아부다비글로벌마켓 (ADGM) 부의장으로도 재임 중이다.

연사 소개
**SPEAKER
 INTRODUCTION**

테크 · 스타트업



세바스티앵 보르제
 Sébastien Borget
 더 샌드박스 공동창업자 겸 최고운영책임자

세바스티앵 보르제는 탈중앙 메타버스 더 샌드박스의 공동창업자이자 COO이다.

더 샌드박스에서는 누구나 자신만의 경험을 만들고, 플레이하고,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고, NFT와 플랫폼의 메인 유틸리티 토큰인 SAND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2020년에 산업계 300여 명 핵심 멤버들이 가입돼 있는 비영리단체인 블록체인 게임 얼라이언스의 의장이 됐다. 최근에, 코인텔레그래프에서 크립토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4위로 선정됐다. 더 샌드박스는 TIMES100에서 2022년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선정됐다.



빅토리아 콜먼
 Victoria Coleman
 제22대 DARPA국장·美공군 수석사이언티스트

빅토리아 콜먼 박사는 제22대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국장을 역임하며 첨단 기술 R&D를 총괄했다.

현재 미합중국 공군의 수석 사이언티스트로 미국 공군과 우주군의 수석 자문역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첨단 기술의 산실로 불리는 DARPA는 유망하거나 향후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군사기술을 기획하는 미국 국방부 산하 최대 R&D 조직이다. 콜먼 박사는 여성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국장직을 수행한 이후 현재 DARPA의 정보과학기술그룹과, 방위과학연구 및 마이크로시스템탐색 이사회 멤버로 활동 중이다. 콜먼 박사는 2019~2020년 아틀라스AI의 최고경영자(CEO)로 활동하기도 했다. 야후, 노키아, 삼성, 인텔 등 민간 부문은 물론 정부, 학계 등 다양한 기관에서 기술과학 리더로서 30년 이상 활동했다.



세인 호손
 Shayn Hawthorne
 AWS 항공우주·위성사업부 우주 기술 총괄

세인 호손은 30년 이상 우주 분야에서 근무했다.

처음에는 미국 공군 우주비행 엔지니어 및 우주 작전 장교로 활동했고, 정보공동체(IC)를 위한 연구 개발 위성의 구축과 발사에 참여했으며 우주 감시와 우주 작전도 수행했다. 그는 마이터 코퍼레이션에서 IC 센서, 미사일 방어국 센서, 교전 시스템, 우주 관제 운용의 기술책임자로 20년간 근무했다. AWS 지역 서비스에 입사해 아마존의 첫 번째 우주 서비스인 AWS 그라운드 스테이션을 설립한 후 AWS의 항공우주 및 위성 솔루션 부서에 합류해 우주 기술 리더를 맡았다. 여기서 호손은 혁신적인 엔지니어, 기술 제품 관리자 및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로 구성된 팀을 이끌며 AWS 전역에서 새로운 우주 서비스와 기능을 개발하고, 기업·정부와 우주 데이터를 공유해 이를 융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아마존의 미션과 제품을 개선했다.



마야 로저스
 Maya Rogers
 테트리스 회장 겸 CEO

마야 로저스는 상징적인 비디오 게임 브랜드 테트리스의 CEO다.

오늘날 테트리스 브랜드는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으며 모든 주요 비디오 게임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다. 그의 리더십 아래 테트리스는 전자 제품, 장난감, 의류, 라이프스타일 용품,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파트너들과 함께 단순한 비디오 게임을 넘어서는 브랜드로 확장했다. 로저스는 하와이에 기반을 둔 벤처 육성기관인 블루 스타트업의 창립 파트너이기도 하다. 2012년 설립된 블루 스타트업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여행과 관광, 지속가능성 및 게임 업종 전반에 걸쳐 100개 이상의 확장 가능한 기술 회사에 투자했다. 로저스는 현재 미국 적십자사 하와이 지부, 카피올라니병원 여성 및 소아센터, 스미스소니언 아시안 퍼시픽 아메리칸센터, 하와이 여성 기금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다.



막시밀리안 비트너
 Maximilian Bittner
 베스티에르 콜렉티브 CEO

막시밀리안 비트너는 테크 기업 경영가이자 베스티에르 콜렉티브의 CEO다.

베스티에르 콜렉티브는 글로벌 패션 리세일 플랫폼 기업으로 패션계의 순환경제를 유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베스티에르 콜렉티브에 합류하기 전 그는 2012년 동남아시아의 온라인 쇼핑 선두 기업인 라자다(Lazada)를 창업했다. 2016년 알리바바그룹이 라자다 지분을 인수했으며, 비트너는 2018년 CEO에서 물러나 자문 역할을 했다. 그는 그에 앞서 모건스탠리, 맥킨지앤드컴퍼니 등에서 경력을 이어왔다.



제이슨 마
 Jaeson Ma
 OP3N 회장 겸 공동 CEO

제이슨 마는 OP3N의 회장 겸 공동 CEO다. 미디어 경영자, 아티스트, 연쇄 창업가이기도 하다.

OP3N은 엔터테인먼트, 게임, 기술 생태계 분야에서 웹 3.0과 커뮤니티에 의해 주도되는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들을 제공한다. 그는 틱톡(TikTok)의 경쟁자로 떠오른 소셜 음악비디오 플랫폼 트릴라의 공동대표이자 미국에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 뮤지션을 소개하는 레이블인 88라이징의 공동 창립자다.

연사 소개
**SPEAKER
 INTRODUCTION**

산업 · 경영



밥 스텐펠스
 Bob Sternfels
 맥킨지앤드컴퍼니 글로벌 회장

밥 스텐펠스는 맥킨지앤드컴퍼니의 글로벌 회장이자 이사회 의장이다.

그는 혁신에 열정적으로 지난 10여 년간 디지털, 분석, 산업전환뿐 아니라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맥킨지앤드컴퍼니의 역량을 확장해왔다. 그는 아프리카 리더십 그룹의 창립 회원이자 회장이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아시아 비즈니스위원회, 포춘 CEO 이니셔티브, 뉴욕 잡스 CEO위원회, 청화SEM자문위원회 등의 멤버로 활동 중이다. 미국 스탠퍼드대와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공부했으며 민간 조중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다.



마크 리드
 Mark Read
 WPP CEO

마크 리드는 세계적 글로벌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업인 WPP에서 2018년 9월부터 CEO로 일하고 있다.

1989년 입사 이후 WPP에서 다양한 리더 업무를 맡아온 그는 WPP디지털의 CEO를 맡았을 당시 기술 혁신 시도에 나서기도 했다. 2015년 그는 WPP 계열의 커뮤니케이션 기업 원더맨(Wunderman)의 글로벌 CEO로 임명됐고, 이 회사를 세계적인 데이터, 기술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는 2021년 영국 광고산업연구원(IPA)으로부터 산업에 대한 뛰어난 공로를 인정받아 IPA펠로 지위를 얻기도 했다.



필립 코틀러
 Philip Kotler
 켈로그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필립 코틀러는 켈로그 경영대학원의 국제마케팅 석좌교수로 ‘현대 마케팅의 아버지’로도 불리고 있다.

1953년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1956년 MIT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22개의 대학에서 명예 학위를 받았으며 90권의 책과 170개의 저널 기사를 쓰기도 했다. 그는 많은 나라의 기업을 컨설팅했으며 강의를 진행해왔다. 마케팅에 대한 저서 외에도 ‘다른 자본주의(Confronting Capitalism)’ ‘공공선의 증진(Advancing the Common Good)’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저술했다.



로이 아제베도
 Roy Azevedo
 레이시온 인텔리전스 앤드 스페이스 사장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그룹 레이시온 인텔리전스 앤드 스페이스사의 로이 아제베도 사장은 전 세계 3만5700명의 직원을 이끌고 첨단 센서, 트레이닝, 사이버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아제베도 사장은 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30년간의 임원 경력을 지녔으며, 2020년 레이시온과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UTC)의 합병 전에는 레이시온의 우주 항공 사업부 사장을 역임했다. 사장 취임 전에는 레이시온의 정보·감시·정찰 체계 임무를 총괄하는 부사장, 보안 센서 솔루션 분야 총괄 부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아제베도 사장은 레이시온 사우디아라비아, 레이시온 영국, 레이시온 호주의 이사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하엘 실호른
 Michael Schoellhorn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 CEO

2021년 7월 1일부터 에어버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 최고경영자(CEO)를 맡아 회사를 이끌고 있다.

에어버스 집행위원회 멤버로서 에어버스의 국방, 우주, 무인 항공 서비스 및 관련 정보 활동을 책임지고 있다. 그 전에는 에어버스 최고운영책임자(COO)이자 최고경영위원회 멤버였다. 그는 생산, 품질, 조달, 정보 관리 조직을 이끌며 미래의 생산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구축했다. 2019년 2월 에어버스에 합류하기 전에는 2015년부터 보쉬&지멘스(BSH) COO와 경영이사회 위원을 맡았다. 1999년 보쉬에 입사해 2012년 제조 및 품질 부사장에 임명되기 전 미국, 체코, 독일의 자동차 부문에서 다양한 고위 관리직을 맡았다.



파티 비롤
 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파티 비롤 박사는 2015년부터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사무총장 취임 후 그는 IEA 창립 이후 처음으로 종합적 현대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IEA를 이끌었다. 주요 신흥경제국에 대해 문호를 열었으며 IEA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글로벌 허브로 만들었다. IEA의 에너지안보 범위를 석유뿐 아니라 전기, 천연가스, 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 기술에 필요한 중요 광물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하기도 했다. 그는 타임지(紙)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목록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연사 소개
SPEAKER
INTRODUCTION

문화 · 미래



마리아 레사
Maria Ressa
래플러 CEO

마리아 레사는 필리핀의 온라인 뉴스 매체인 래플러의 CEO다.

레사는 온라인 탐사보도 매체 래플러를 통해 가짜뉴스와의 싸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은 레사는 2019년 기업인 윌프레도 켄에 대한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국경없는기자회'가 구성한 정보민주주의 위원회 소속으로도 활동해왔다. 국제언론인협회(IPJ) 이사회 멤버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같은 용기있는 행보는 "민주주의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전제조건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인정받았고 그 결과 그녀는 202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다. 이외에도 2018년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과 2019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된 바 있다.



벤 넬슨
Ben Nelson
미네르바스쿨 설립자 겸 CEO

벤 넬슨은 세상을 위해 비판적인 지혜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2011년 미네르바대학교를 시작했다.

지난 10년 동안 미네르바를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이자 미국에서 가장 선택적이고 효과적인 대학으로 만들었으며 미네르바의 독특한 접근 방식을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기관들과 공유하기 위해 미네르바 프로젝트 비즈니스를 개발했다. 미네르바 창립 전에 그는 10년 동안 스타트업에서 근무했다. 스타트업이 작은 스타트업에서 출발해 라이벌 기업의 5배가 넘는 실적을 내는 세계적인 프린팅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했다. 벤 넬슨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스타트업의 CEO로 재임하는 중 스타트업은 휴렛팩커드에 3억달러에 인수됐다.



이민진
Min Jin Lee
소설 '파친코' 작가

이민진은 디아스포라, 인종, 민족, 이민, 사회적 계층, 종교, 젠더,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글을 쓰는 작가다.

그의 두 번째 소설인 '파친코(Pachinko)'는 일본으로 이민 간 한국 가족에 대한 작품으로, 재일한국인을 주제로 쓴 첫 번째 영어 소설이다. '파친코'는 내셔널 북 어워드 픽션 부문(National Book Award for Fiction)에 결선 진출했고, 데이턴 문학평화상(Dayton Literary Peace Prize) 2위와 메디치상(Medici Book Club Prize) 수상을 기록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인 '파친코'는 BBC와 캐나다 공영방송, 뉴욕공립도서관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책 1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파친코'는 35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된 글로벌 베스트셀러다. 애플TV+는 '파친코'를 드라마 시리즈로 제작 중이다. 이민진은 애드위크 크리에이티브 100(Adweek Creative 100)의 '국가 담론을 바꾸는 10명의 작가와 편집자' 중 1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칼 베네딕트 프레이
Carl Benedikt Frey
옥스퍼드 마틴스쿨 일의 미래 (Future of Work) 프로그램 디렉터

칼 베네딕트 프레이는 영국 옥스퍼드 마틴스쿨에서 '일의 미래(Future of Work)' 프로그램의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

그는 '일의 미래'와 기술이 어떻게 경제와 노동력을 바꿀 수 있는지를 연구한 선도적인 학자로 꼽힌다. 그는 저서 '테크놀로지의 덫'에서 기술혁명과 그에 따른 사회·정치 변화에 대해 분석했고, 이 책은 2019년 파이낸셜타임스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집행위원회, 유엔 등에서 자문과 컨설팅을 맡기도 했다. 이와 함께 파이낸셜타임스, 포린어페어스, 와이어드, MIT 테크놀로지리뷰,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폴린 브라운
Pauline Brown
전 LVMH 북미 회장

폴린 브라운은 오랫동안 명품 업계를 선도해왔다. 그녀는 현재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의 마케팅 교수이자 미국 고급 백화점 체인인 니먼 마커스 그룹 이사회 임원이다.

또한 '사고 쉽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비즈니스 서적의 저자이며 기업 자문 회사이자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에스텔릭 인텔리전스 랩스(Aesthetic Intelligence Labs)의 설립자다. 커리어 초기에 폴린은 LVMH 북미 회장이었으며 패션, 보석, 화장품, 와인 및 주류, 소매업 등 5개 분야의 70개 브랜드를 이끌었다. LVMH에 합류하기 전에는 칼라일 그룹, 에스티 로더, 베인앤드컴퍼니의 고위 임원직을 역임했다. 그녀는 다트머스대에서 학사 학위를, 와튼스쿨에서 MBA를 취득했으며, 2008년부터는 애스펜 인스티튜트의 헨리 크라운 펠로우로 활동하고 있다.



로버트 주브린
Robert Zubrin
화성학회 회장

공공 및 민간 수단으로 화성 탐사 정착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기관인 화성학회(The Mars Society)의 설립자이자 회장이다.

주브린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비롯해 미군 및 민간 산업을 위한 70개 이상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20개가 넘는 미국 특허를 출원했고 우주와 에너지 기술 분야에 대한 논문을 200권 이상 발표했으며, '우주산업혁명'을 비롯한 12권의 책을 출간했다. 그는 또한 영국행성간협회(BIS-British Interplanetary Society)의 펠로이며, 전미우주학회(NSS-National Space Society)의 집행위원장을 역임했다. 북극에서 900마일 떨어진 캐나다의 북극 지방 무인도인 데번 섬의 화성탐사훈련소 건설과 운영을 이끌기도 했다. 우주학 분야에서 일하기 전에는 열핵융합 연구와 원자력 공학, 방사선 방호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았으며,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기도 했다. 워싱턴대학교에서 항공우주학 석사와 원자력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MBA 소개
MBA
INTRODUCTION

지식 강국을 향한 매일경제의 꿈,
 세계 유수의 MBA와 함께합니다.



NYU 스텐

뉴욕대 스텐경영대학원은 미국 최고의 경영 교육 대학원이자 연구센터 중 하나로,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 높은 권위를 자랑합니다. 세계 비즈니스 중심지인 뉴욕의 역동성, 에너지는 물론 뛰어난 교수진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IESE

IESE는 스페인 나바라대학의 경영대학원으로,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과 제휴를 통해 1964년 개설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뮌헨, 뉴욕, 상파울루 등 5개 도시에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파이낸셜타임스(FT)에서 선정한 Exclusive Education 부문은 1위(2015~2018년),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가 뽑은 세계 최고 MBA 프로그램 2위(2017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뽑은 유럽 최고 글로벌 MBA는 3위(2019년)를 차지했습니다.



IE 경영대학원

세계 최고의 고등교육기관 중 하나인 IE 경영대학원은 석사에서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혁신적인 기술과 교육 방법론을 통해 현재 트렌드를 읽어내고 이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E 경영대학원은 글로벌 비전, 인본주의적 접근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가진 리더를 양성합니다. 고등교육의 경계를 넓히고 최고의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더욱 광범위한 글로벌 학생 및 교수 네트워크를 형성해 여러 산업과 배경의 전문가들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각자 전문 분야에서 지속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장강경영대학원(CKGSB)

홍콩 최대 부호인 리카싱이 세운 리카싱재단의 후원으로 2002년 베이징에 설립된 중국 최초의 사립 경영대학원입니다. 하버드대, 펜실베이니아대, 스탠퍼드대 등 세계 유수의 경영대에서 학위를 받은 교수진과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5%를 견인하는 동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명문 MBA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주요 교수가 참가해 성공하는 중국 기업의 비결을 전수합니다.

등록 절차 안내

REGISTRATION INFORMATION



참가비 안내

REGISTRATION FEE

구 분	조기등록 (7월 12일 ~ 8월 8일)	일반등록 (8월 9일 ~ 9월 8일)
일반	₩3,300,000	₩3,600,000
할인 (50%)	대학생,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자 후손	
	₩1,800,000	

*부가세 포함

제23회 세계지식포럼

초과회복: 글로벌 번영과 자유의 재건
(Supercompensation: Restoring Global Prosperity & Freedom)

기간 | 2022년 9월 20일(화) ~ 22일(목)

장소 | 장충아레나 · 신라호텔 · DDP

조기등록

마감일은 8월 8일(월)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신청을 하셨으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반등록으로 전환되면서 할인 혜택은 자동 취소됩니다.

일반등록

마감일은 9월 8일(목)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일반등록 시에도 마감일까지 입금 완료하셔야 최종 등록으로 인정됩니다.

회원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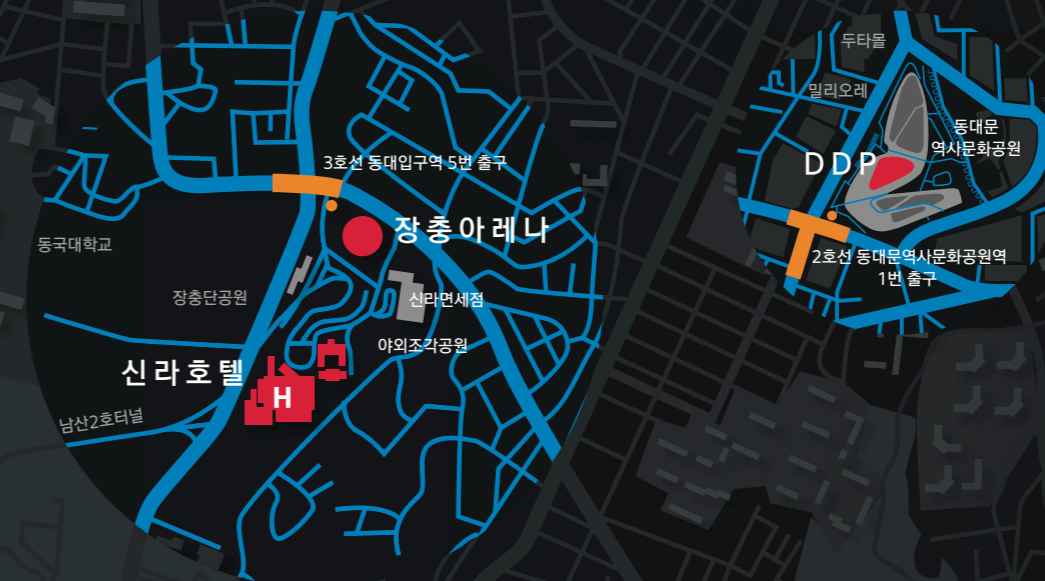
-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세계지식포럼의 다양한 이벤트와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계지식포럼 유료 참가자의 경우 이메일로 발송되는 유료인증코드를 입력해 회원 가입을 완료하셔야 아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관리, 참가자 네트워킹, 스케줄 관리, 주요 세션 스트리밍 및 다시보기

안내사항

- 제23회 세계지식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 대학생, 장애인, 독립유공자 후손 할인: 재학증명서(전업 대학생), 장애인 등록증(중증), 독립유공자유족증(5대손까지) 등의 해당 서류를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는 분에 한합니다.
- 등록 취소를 원하는 경우 9월 8일(목) 오후 6시까지 취소 신청하시면 행사 종료 후 환불해 드립니다. (처리 수수료 제외)
- 참가비에 호텔 숙박요금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모든 세션에는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 자세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지식포럼 등록사무국

서울시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4층
Tel : 02-2000-2620~4 | E-mail : wkf_reg@mk.co.kr



매경미디어그룹 회사 소개

MAEKYUNG MEDIA GROUP

매일경제는

초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을 선도하며 지식강국의

내일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초일류 국가의 꿈을 실현합니다.

매일경제

월간 현대경영, 엠브레인 등의 조사에 의하면 매일경제신문은 '전국 직장 구독률 1위 신문' '서울 도심 구독률 1위 신문' '14년 연속으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뽑은 명품신문' 등 오피니언 리더 및 구매력 높은 고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ABC협회로부터 발행부수 70만7,749부(2018년분)를 공인받은 명실상부한 1등 신문입니다.

매경미디어그룹은 기업들의 성공적인 광고·홍보 매체로서도 가장 효율적인 신문입니다. 매경미디어그룹은 니혼게이지이신문과 인민일보, 파이낸셜타임스, 상하이TV 등 글로벌 미디어그룹 및 방송 제작사들과의 콘텐츠 교류, 방송 프로그램 공동 제작, 지분 투자 등의 업무를 제휴해 매경미디어그룹의 특징점을 강화할 수 있는 최상의 글로벌 미디어 파트너십을 구성했습니다.

MBN

MBN은 1995년 국내 최초의 보도 전문채널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1일, 종합편성채널로 새롭게 출발한 MBN은 17년간 보도채널의 노하우와 함께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 또 방송계 인포테인먼트 장르 열풍을 불러일으킨 재미와 정보·유익함을 갖춘 예능, 따뜻함과 진정성을 담은 착한 교양과 감동이 있는 드라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약 덕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채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힐링 예능' '착한 교양' '스토리 교양' '리얼 관찰' 등 새로운 포맷의 MBN식 장르 개발이 그 원동력이 되어 새로운 MBN 시청자층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MBN은 차별화된 편성 전략과 문화와 세대를 뛰어넘는 명품 콘텐츠로 끊임없이 시청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청자와 공감할 것입니다.

등록부터 포럼의 주요 정보까지
세계지식포럼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세계지식포럼 홈페이지

www.wkforum.org



세계지식포럼의 최신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는 방법

세계지식포럼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세계지식포럼의 다채로운
영상을 만나보세요.

세계지식포럼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wkforum

